

<혈의 누>와 세 개의 공간

임 선 애*

<목 차>

1. 시작하며
2. 개화기, 전쟁과 조약의 시대
3. 세 개의 공간과 그 의미
 - 3.1 해체와 떠남의 공간, 조선
 - 3.2 구원과 버려짐의 공간, 일본
 - 3.3 만남과 준비의 공간, 미국
4. 마치며

【요 약】

이인직의 <혈의 누>(1906)는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인해 김관일의 일가가 겪는 수난과 인물들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 만들기 전략에 관한 서사이다. 서사에는 조선, 일본, 미국이라는 세 개의 공간이 설정되고 있다. 조선은 왕조의 말기적인 증세와 청일전쟁으로 인한 혼란함, 문명담론에 대한 실천의 열망 등 왕조해체의 위기로 인물들이 조선을 떠나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일본은 전쟁고아가 된 옥련이 구원되는 공간으로 설정되다가 결국에는 버려지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미국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고, 인물들이 서구지식을 습득하며 조선의 문명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의전담교수

공간 설정의 기법에서 이인직의 의식의 혼란과 잠재된 지향을 읽을 수 있다. 조선의 공간에서는 청국과 일본을 각각 악과 선의 축으로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의 공간에서는 일본을 믿을 수 없는 상대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공간에서는 인물들이 다시 청인의 도움으로 미국생활을 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런 대상에 대한 관점의 불일치는 정국혼란의 상태에서 중심을 잃은 작가의 의식상의 혼란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서술자(이인직)의 친일논리는 서사의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인물들의 궁극적인 지향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건설에 있었다. 이인직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건설을 준비하는 공간을 일본이 아니라 미국으로 설정했다. 이 점은 에테로피아의 공간에서 살았던 이인직이 <혈의 누>를 발표할 당시인 1906년까지만 해도 친일의 정치성보다는 자주독립과 문명국가건설을 더 열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문명국가의 견본인 미국에서의 지식습득은 당대 조선의 이데올로기였던 문명국가건설에 대한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호로 작용한다. 이 논문은 친일의 논리에 치중되어왔던 이인직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1. 시작하며

이인직(1862-1916)의 <혈의 누>(1906)는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인해 김관일의 일가가 겪는 수난과 극복과정을 통해서 인물들의 자주문명국가 만들기 전략을 보여주는 서사이다. 신소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¹⁾에서 이루어져 왔던 만큼 <혈의 누>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

1) ① 문학사적 의의-임화, 김태준, 백철, 조연현, 전광용, 송민호, 조동일, 정한모, 김병철

행되어 왔다. 그 결과 이광수의 <무정>과 비교함으로써 서사구조와 작가의식에 있어서의 유사성²⁾이 있다, 19세기 후반기의 한국 민중의 유민流民현상을 소설화한³⁾ 작품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이데올로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인식시키기 위하여 창작한 소설⁴⁾이다, 시련의 반복 속에서 성장하는 서사구조는 대중성을 획득하는 통속성⁵⁾을 지닌다 등의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결국 <혈의 누>는 신소설의 정치소설적 속성, 가족윤리의 회복을 지향하는 전통적 서사물과의 유사성, 근대적인 계몽의식의 형성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문명개화라는 시대사적 과제를 풀어 간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작품⁶⁾으로 요약될 수 있다.

소설의 발생과 사회구조와의 상관성을 생각해 볼 때 <혈의 누>도 두 요소 간의 상호텍스트성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사의 시작은 청일전쟁에서부터 시작된다. 1894년. 우리의 역사

② 표현양상과 서술구조-전광용, 이재선, 신상룡, 권영민, 조남현, 유양선, 박종철, 이용남

③ 작가의 전기적 사실-전광용, 윤명구, 정숙희, 이용남

④ 구소설과 비교-조동일, 송민호

⑤ 문예사회학적인 연구-민병수, 이재선,

⑥ 비교문학-이재수, 김병철, 이재선, 최숙인, 김병철, 김학동 (이용남, 『한국 개화기 소설 연구』, 16-18면 참조)

2) 이동하, 「『血의 淚』와 『無情』比較考察」,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제8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3) 전기철, 「『血의 淚』에 나타난 流民의 삶의 세계」,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제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6.

4) 한상무 「『血의 淚』의 이데올로기」, 어문학보: 강원대학교 제17집,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4.

5) 김면수, 「『血의 淚』小考」, 인하여문 연구: 인하대학교 제5호,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인하여문연구회), 2001.

6)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 『한국 신소설선집』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53면 작품해설.

에서 1894년은 갑오농민전쟁, 갑오개혁, 청일전쟁이라는 커다란 사건들이 일어난 해이다. 전쟁과 개혁은 거시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들이기도 했지만, 당대를 사는 주체들의 일상이 해체되고 재편되는 미시사 변형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19세기 말의 한국. 조선의 정세를 보면 안으로는 왕조의 나약함으로 부패한 관료의 학정에 시달렸던 민중들은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개항의 위협 앞에서 외교의 범위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 동안 쌓여왔던 민생의 고통들이 1894년 갑오농민전쟁으로 확대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선조정의 수구파들은 청국군사를 불러들이고, 이에 일본은 청국을 상대로 텐진조약의 위반을 내세우며 청일전쟁을 벌였다. 동학군과 관군, 동학군과 청국군, 동학군과 일본군, 청국군과 일본군이 대립되는 형상을 하면서 갑오농민전쟁은 종식이 되었지만, 일본의 조선내정 간섭은 강도를 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청국군을 원군으로 삼아서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결과를 보이는 실정失政의 한 예이다.

개화가·애국계몽기·개항기, 근대전환기·계몽기·개화 계몽시대⁷⁾로 일컬어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역사의 유례없는 변화를 겪은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호명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정체성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새로운 지식과 상상력을 왕성하게 흡수하고 세계의 상(像)과 자기 자리를 다시 짜는가 하면, 자기 부정을 거듭 감행하기도 한 시기였다. 또 세계는 나날이 다른 모습을 갖추었고 지적 생산력 역시 쉬임없이 여기에 대응해 가는 시기⁸⁾였다.

전쟁이야말로 문명의 탄생 이전부터 인간이 끊임없이 겪어온 경험의 일부⁹⁾라고 하기에는 청일전쟁이 조선에 끼친 피해는 너무 컸다. <혈의

7) 앞의 용어는 역사학 연구자, 뒤의 용어는 문학 연구자들이 쓰는 용어이다.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16-18면 참조.

8)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00, 20면.

9) 도널드 케이건, 『전쟁과 인간』, 김지원 옮김, 세종연구원, 2004, 18면.

누>는 청일전쟁 동안 겪었던 한 가족의 경험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서사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인물들은 세 개의 공간으로 흩어졌다가 미국의 공간에서 상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설 속에서 공간은 시간과 결합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소우주를 이루면서 단순히 작품의 배경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기도 하고 성격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동기가 된다. 공간의 이동을 통해 독자들은 상상력을 촉발하기도 하며 여러 공간의 체계적인 답사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에서의 공간은 거시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 심리적이고 지엽적이며 미시적인 세계일 수도 있다.¹⁰⁾

이 논문의 목적은 <혈의 누>에서 이인직이 설정했던 세 개의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당대 사회와의 상호텍스트성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다. 세 개의 공간을 설정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이인직의 숨은 욕망은 무엇이었을까를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19세기 말은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는, 푸코가 이야기 했던 에테로토피아의 공간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작품의 분석은 진행될 것이다. 텍스트는 『한국 신소설 선집』1(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¹¹⁾으로 한다.

2. 개화기, 전쟁과 조약의 시대

19세기 말의 조선은 모든 견고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공간이었다. 조선왕조의 왕권은 힘을 잃었고 관료들의 부패와 학정은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려 허덕이게 했다. 이웃나라인 청과 일본은 서구제국들의 눈

10)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7, 40-41면.

11) 본문인용 시 서지사항은 생략하고 면수만 표시한다.

치를 보며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헤게모니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문명진과가 백인의 의무¹²⁾라고 생각하던 서구제국들은 앞을 다투어 조선왕조를 향해 문호의 개방을 요구하며 회유와 협박을 반복하고 있었다. 내우외환內憂外患과 진퇴양난進退兩難의 모습을 띠면서 시작된 한국의 근대(개화기)는 축적된 시간의 작용(전통)과 확장된 공간의 영향(서구)이 상호 작용하는 총체¹³⁾ 즉 역동성을 지닌 공간이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 초반에 걸친 한국 근대사의 전개과정은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이후, 운양호 사건(1875)과 강화도조약(1876),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과 을사보호조약(1905)에 이르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서구열강 및 청국, 일본에 의한 힘의 정치가 역사과정의 축을 이루고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근대사상사의 전개과정은, 이러한 힘의 정치를 축으로 한 외압에의 대응의 역사로서, 대내적으로 다양한 대응의 발상이 대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한국의 부국강병과 대외적 독립을 목표로 주자학적 사유에 입각한 존화양이론으로부터, 동도서기, 문명개화론에 의거한 개화사상 및 개화운동, 보국안민 사상의 구축 및 농민운동, 민족적 자아의 발견에 기초한 자강의 사상, 의병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운동이 대두하여 각각의 도정을 밟아가고 있었다.¹⁴⁾

전반적으로 이 시기 조선에서는 서구 근대국제질서체제에의 편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 당시 동북아 등 국제정치의 현실을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상에 비유하거나 ‘동-서 인종간의 전쟁’, ‘약육강식의 시대’ 등 구체적 표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국가간 ‘전쟁상태’로 파악¹⁵⁾하였다.

12) 김진희, 「백인의 의무」, 미국사 연구 19, 한국미국사학회, 2004, 25-35면.

13)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19면.

14) 이원영, 「문명사관과 문명사회론」,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 30집 4호, 1996, 136면.

15) 김현철, 「개화기 한국인의 대외인식과 ‘동양평화’ 구상」, 『평화연구』제11권

세상이 날로 개화되어 모든 문물이 더욱 발달함에 따라 사람의 기욕(嗜慾)도 더욱 심해진다. 저 강성하다는 나라를 가지고 보더라도 모두 만족을 모르고 갑(甲)이 군함을 만들면 을(乙)은 대포를 만들고, 저쪽이 육지를 질식하면 이쪽은 해도(海島)를 병탄(併呑)하여 서로 상대 나라보다 우월하기를 힘써 백성들을 도륙하고 화기(和氣)를 해친다. 비록 우주 가운데 큰 나라를 차지한 자라도 인애(仁愛)하는 마음을 뒤로 하고 전쟁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욕심이 그치지 않고 더욱 자라고 분노하는 마음을 항상 품어 약육강식(弱肉強食)이 항상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자주(自主)하려면 나라의 있는 힘을 다해 피로써 지키려다가 도리어 화를 입어 수천 만명이 죽는 일을 당하게 되니 이는 형세가 부득이한 점에서 나온 것이다.¹⁶⁾

이와 같이 근대 국제정치의 현실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시각에서 보면, 국가적 독립을 보전할 수 있는 군사력 등 국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타국의 식민지를 면할 수 없음을 기정사실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정치현실 인식과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화기 조선과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국가간 전쟁 방지와 국권회복이 주요 선결과제로 부각되었다.¹⁷⁾

<혈의 누>의 시간적인 배경은 1894-1902년 무렵이다.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군에서 탐관오리인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시달리다 못해 전봉준을 지도자로 봉기한 농민 저항이 그 이전에 일어났던 민란과는 성격이 크게 달랐던 것은, 민중의 소요가 동학운동과 결합된 형태이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해 5월에 동학군이 전주성을 향해 북상하려는 움직임에 놀란 정부는 전주 지방군으로 진압하려 하였으나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이 패하자 양호초토사 홍계훈은 조정에 정부군의 증원 파견 요청과 함께 청군차입을 주장하

1호, 2003년 겨울, 13면.

16) 博文局, 『漢城旬報·漢城週報』, 번역문(寬勳클립신영연구기금, 1983), 90면.

17) 김현철, 위의 글, 14면.

였다.¹⁸⁾ 동학농민전쟁이 청일전쟁을 불러 온 셈이다.

청일전쟁은 동양의 국제질서로 인정되어 오던 화이華夷의 질서가 해체¹⁹⁾되고 일본을 중심으로 체제의 재편을 맞이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청나라와 일본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를 체결한 이래 1877년과 1880년에는 부산과 원산을 특별거류지로 정하고 일본통치권을 행사하며 조선을 간섭하고 있었다. 1882년 7월 군대의 반란과 민중의 합류로 일본군사교관을 살해하고 일본공사관을 습격한 것(임오군란)을 빌미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이후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적용시켜 조선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었다. 청일전쟁은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당대 조선인들의 일상을 해체하는 큰 사건이었다. 민중들은 왕실과 양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개화한 지식인들은 서구지식을 습득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며 문명의 원형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을 향해 떠난다.

개화기 개화지식인들에게 미국을 소개한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근대의 조선이 가지게 된 첫 번째 서양 견문록이었다. 팽창하는 근대 서구 문명과 동아시아의 만남은 적극적으로 대항해를 감행했던 서양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서구의 압력과 충격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조선에게 비교적 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이쪽에서 서양을 향해 손을 뻗친 만남도 적었다. 서양을 배우려는 유학생의 파견은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보기이다. 유학생의 진출은 중국쪽으로 마카오에 유학한 김대건, 최양업 등의 종교 유학과 일본·미국으로 이어진 유길준의 <서유견문>까지 기다려서야 비로소 나타난다. 유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유길준의 나이는 벌써 25세를 넘었고, 애초부터 유학을 목적으로 떠난 것도 아니었고, 착실히 유학에 전념하는 형편에 있

18) 이민호, 「청일전쟁과 조선의 운명」, 『동서사학』제8집, 2001, 121면.

19) 후지무라 미치오, 『청일전쟁』, 허남린 옮김, 소화, 1997, 9면.

지도 않았다. 그는 일찍부터 조선의 불안한 정치 정세에 부침하면서 일본과 미국을 떠돌았고, 이 책 또한 본격적인 견문기로서 보다는 서양 소개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²⁰⁾ 유길준의 미국담론은 개화지식인들을 통해서 재생산되어 일반인들에게는 선형적이고 환상적인 상상의 지리로 유포되게 된다.

한국의 개화기는 푸코가 말하는 에테로토피아(hétérotopia) 즉, 혼재향混在郷으로 설명될 수 있는 공간이다. 에테로토피아는 사물들 상호간에 전혀 다른 <장소>에 <들어서서> <위치되고> <배열되며>, 장소의 이질성에 의해 그 사물들 모두의 기숙장소, 즉 그것들 모두의 <공통장소>를 규정하기가 불가능한²¹⁾ 모습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유토피아가 정합성을 가지는 질서의 공간이라면 에테로토피아는 불연속성으로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는 공간이다. 한국의 개화기는 동양의 주변국과 서구의 열강이 <조선>에 들어와서 <위치되고> <배열되어> <개화기 조선>을 규정하기 불가능한 형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에테로토피아의 공간으로 정의될 수 있다.

3. 세 개의 공간과 그 의미

3.1. 해체와 떠남의 공간, 조선

<혈의 누>는 김관일의 아내가 청일전쟁의 피난길에서 남편과 자식을 찾아 헤매는 데에서 서사가 시작된다. 평양의 집을 중심으로 김관일과 그의 아내, 딸 옥련이 숨바꼭질하듯이 찾다가 결국에는 이산離

20) 김태준, 「《일동기유》와 《서유견문》」, 동방문화비교연구총서3, 한국동방문화비교연구회, 1997, 210면.

21)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 1993, 14면.

散²²⁾의 아픔을 겪게 된다. 가족간의 이산과 상봉이라는 이야기 구조는 전대의 고전소설에서도 볼 수 있었던 가족이합(家族離合)에 따른 고난과 행복의 유형구조²³⁾이지만 서사의 사건이 지나는 당대성은 전대의 소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요소이다.

서사의 첫 번째 공간인 조선은 청일전쟁의 전장(戰場)으로 당대 주체들의 일상적인 삶이 파편화되고 해체되는 공간으로 서술되고 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김관일의 아내는 ‘대문 밖에 한 걸음 나가 보지 못하던 사람’(8면)이었지만, 전쟁이 나자 ‘옷은 흘러 내려서 젖가슴이 다 드러나고 치맛자락은 땅에 질질 끌리는’(1면) 형상으로 허둥거리면서 가족들을 찾아다니는 인물로 변신한다.

성중에는 울음 천지요, 성 밖에는 송장 천지요, 산에는 피란꾼 천지라. 어미가 자식 부르는 소리, 서방이 계집 부르는 소리, 계집이 서방 부르는 소리, 이렇게 사람 찾는 소리뿐이라. 어린 아이를 내버리고 저 혼자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두 내의 손을 맞붙들고 마주 찾는 사람도 있더니, 석양판에는 그 사람이 다 어디로 가고 없던지 보이지 아니하고, 모란봉 아래서 옥련이 부르고 다니는 부인 하나만 남아 있더라.(7면)

위의 서사에서처럼 전쟁은 죽음과 슬픔, 피난과 이산 등 당대의 주체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프리 블레이니는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 형태의 힘일 뿐이다. 민족주의적 허세,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려는 야욕, 인접영토에서의 혈연보호, 보다 많은 영토나 상업권을 확보하려는 욕망, 패배나 모욕에 대한 복수심, 보다 강력한 국력과 독립에 대한 열망, 동맹을 과시하고 굳건히 하려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포장만 달랐지 전부 힘을 나타낸다. 경쟁국간 상충하는 목

22) 전기철, 「<혈의 누>에 나타난 유민적 삶의 세계」, 관악어문연구 제11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6, 167-175면.

23)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출판부, 1973, 59면.

적은 언제나 힘의 갈등²⁴⁾이듯이 청일전쟁도 힘의 갈등이었다.

김관일의 가족들은 평양성 내에 있는 집을 중심으로 숨바꼭질하듯이 서로를 찾아다니지만 시간의 엇갈림으로 결국 못 만나게 된다. 김관일의 아내는 피난 중에 남편과 딸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찾으려고 갖은 고생을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게 된다. 남편과 딸이 돌아오지 않자 전쟁의 난리 중에 죽었으리라고 짐작하며 유교의 도를 따라 자신도 죽기로 결심하고 대동강물에 뛰어들지만 실패하고 만다. 친정부친의 방문으로 남편의 생사는 확인되었지만 딸의 소식을 기다리며 슬픔에 빠진 생활을 하게 된다. 이처럼 조선의 공간은 청일전쟁으로 가족과 개인의 삶을 해체시키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아내와 딸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김관일은 아내처럼 죽을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의 처세를 계획한다.

① 우리나라 사람이 제 몸만 위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 하고, 남은 죽든지 살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제 벼슬만 잘하여 제 살만 찌우면 제일로 아는 사람들이라.(8면)

② 제 정신 제가 차려서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와 같이 밝은 세상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 백성된 우리들의 목숨도 보전하고 재물도 보전하고, 각도 선화당과 각도 동헌 위에 이귀 귀신같은 산 염라대왕과 산 터주도 못 오게 하고, 범 같고 곰 같은 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감히 싸움할 생각도 아니 하도록 한 후이라야 사람도 사람인 듯싶고 살 아도 산 듯싶고, 재물 있어도 제 재물인 듯하리로다.(9면)

③ 그러하나 세상에 뜻이 있는 남자 되어 처자만 구구히 생각하면 나라의 큰 일을 못 하는지라. 나는 이 길로 천하 각 국을 다니면서 남의 나라 구경도 하고 내 공부 잘한 후에 내 나라 사업을 하리라 하고

24) 위의 책, 23면.

밝기를 기다려서 평양을 떠나가니, 그 발길 가는 데는 만리타국이라.(9면)

①에서 보듯이 김관일은 청일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당대의 파벌싸움에서 찾고 있다. 당대 다수의 관료들이 수구파와 개화파로 나뉘어 청국과 일본의 그늘에서 자신들의 입신출세를 꿈꾸는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보면 김관일은 당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서사 전체를 통해서 그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나이 스물아홉 살인데, 평양서 돈 잘 쓰기로 이름 있던'(7면)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는 없지만 ②와 ③의 서사는 그가 개화파의 생각에 동조하는 인물로 파악된다. ②의 서사에서 김관일은 탐관오리의 착취와 학정, 청국과 일본의 내정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주문명 국가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③의 서사에서 김관일은 자주문명국가 만들기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다. 자주독립과 문명국가건설의 준비는 조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구지식의 습득으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했던 김관일은 조선을 떠나게 된다. 김관일은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를 중시했던 당대 개화인의 일반론을 수용했던 인물이다. 조선의 공간은 이렇듯 인물들이 흩어지고 떠나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김관일의 딸인 옥련은 7세의 어린 나이로 피란 중 부모도 잃고 다리에 부상도 입게 된다. 부상의 정도가 가벼워서 일본군의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을 찾았으나 부모가 없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일본 이노우에 군의의 집인 일본으로 입양되어진다. 옥련은 한국의 문학적인 서사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최초의 인물이다. 조선은 이렇게 연극적 진실²⁵⁾을 가지는 시간의 엇갈림으로 인해 김관일의 가족들을 일본과 미국으로 흩어지게 하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인직은 개화기 조선의 전쟁상태에서 주체들이 파편화되는 현상을 리얼하게 재현하고 있다.

서사는 가족의 해체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지켜지던 신분차별제도였

25) 관객은 알지만 등장인물들은 모르는 사실을 가리키는 연극용어이다.

던 ‘양반’과 ‘상놈’의 경계해체도 보여준다. 김관일의 장인인 최주사가 평양에서 치열했던 청일전쟁의 소식을 듣고 사위의 집을 방문하면서 데리고 간 하인 막동이의 언술은 견고하게 지켜져오던 신분경계의 해체를 짐작할 수 있는 발화이다.

“나라는 양반님네가 다 망하여 놓으셨지요. 상놈들은 양반이 죽이면 죽었고, 때리면 맞았고, 재물이 있으면 양반에게 빼앗겼고, 계집이 어여쁘면 양반에게 빼앗겼으니, 소인 같은 상놈들은 제 재물 제 계집 제 목숨 하나를 위할 수가 없이 양반에게 매였으니, 나라 위할 힘이 있습니까. 입 한 번을 잘못 벌려도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오금을 끊어라 귀양을 보내라 하는 양반님 서슬에 상놈이 무슨 사람값에 갔습니까? 난리가 나도 양반의 탓이올시다. 일청전쟁도 민영춘²⁶⁾이란 양반이 청인을 불러왔답니다. 나리께서 난리 때문에 따님 아씨도 돌아가시고 손녀 아기도 죽었으니 그 원통한 귀신들이 민영춘이라는 양반을 잡아갈 것이올시다.”(18면)

막동이의 언술은 조선 후기 신분제도의 실상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서사이다.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철저히 지켜지던 시대에는 감히 이런 발화를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목숨을 담보로 할 때만 이런 발화가 가능했다. 1894년에 있었던 갑오농민전쟁은 임진왜란 이후 하층계급은 더 이상 상층계급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힘을 기르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막동이의 언술은 신분차별의 해체를 알리는 기호로 작용하고 있다.

서사는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동아시아의 질서가 해체되고 일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동아시아의 질서를 보여준다. 앞에서 보았듯이 청일전쟁은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끝이 났다. 그 결과 일본은 일본형 오리엔탈리즘²⁷⁾을 창출하는 계기로 발돋움했다. 청

26) 민영준의 잘못된 표기(텍스트, 18면)
27) 정용화,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 형성과 오리엔탈리즘」, 『정치사상연구』제

국군은 약탈과 겁탈을 일삼는 악인으로, 일본군은 보호와 도움을 주는 선인으로 그려지고 있는 사실은 이를 말해 준다. 이러한 인물설정의 방법에서 작가 이인직의 친일성향이 노출되고, 이 점은 여러 논자들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다.

3.2. 구원과 버려짐의 공간, 일본

일본은 조선인의 구원 공간으로 설정된다. 김관일의 딸 옥련이 7살의 어린 나이로 부모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자 그녀를 치료해준 일본인 이노우에 군의는 그녀를 자신의 집이 있는 일본으로 보낸다. 일본은 고아가 된 조선의 딸을 입양해서 기르는 구원의 공간이다. 어린 나이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 가서 이노우에 군의 부인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학교에도 다니게 된다. 행동의 착실함과 일본어 습득의 빠른 속도는 주변인들에게 귀여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느 날 정상군의의 전사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후 그 부인의 재혼 문제로 옥련은 버려질 위기에 처하고 죽기로 결심한다. 구원의 공간이었던 일본은 버려짐의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그 때 조선인 구완서가 나타나서 미국유학을 제의하고, 옥련은 구완서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된다.

이처럼 일본의 공간은 조선인의 구원자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는 조선인을 버리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구원과 버려짐의 모티프는 조선보호론을 내세우던 일본이 어느 날 조선을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야마는 형상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대륙침략의 야욕을 위해서 조선을 발판으로 이용하고 마침내는 조선을 식민지화할 일본의 음모를 이인직은 예감하고 있었던 말인가? 그의 드러나는 생애를 보아서 그

10집 1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런 단서를 보이지는 않지만 <혈의 누>라는 문학적 공간에서는 그가 사용한 은유를 눈치 챌 수 있다. 문학적 은유로 본 일본의 공간은 믿음성이 결여된 나라로 설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은세계>에 이르러서는 철저히 현실을 수용하고 그에 합리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일본만이 절대적인 위치에서 조선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적 역할을 부여받을 뿐, 나머지 서구의 근대 국민국가나 중국의 개혁세력 등은 전혀 시야에 포착되지 않고²⁸⁾ 있는 점과는 비교가 된다.

일본의 공간에서 옥련이 위기에 처하자 한국인이 구원의 손을 내미는 모티프는 당대의 화두이던 외세의 도움 또는 간섭 없는 ‘자주독립과 문명국가건설’의 열망으로 볼 수 있다.

“오냐, 학비는 염려 말아라. 우리들이 나라의 백성되었다가 공부도 못하고 야만을 면치 못하면 살아서 쓸데 있느냐. 너는 일청전쟁을 너 혼자 당한 듯이 알고 있나 보다마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당하지 아니한 일이나. 제 곳에 아니 나고 제 눈에 못 보았다고 태평성세로 아는 사람들은 밥벌레라. 사람이 밥벌레가 되어 세상을 모르고 지내면 몇 해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청전쟁 같은 난리를 또 당할 것이다. 하루바삐 공부하여 우리나라의 부인교육은 네가 맡아 문명 길을 열어 주어라.”(42면)

옥련이 죽음을 결심할 때 홀연히 구완서가 나타나서 구한다는 모티프는 고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티프이며, 신소설이 지니는 전대소설과의 내적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이다. 위의 서사처럼 당대의 선각자들은 자주독립과 문명국가의 건설을 열망하며 그 일에 온 열정을 바치고 있었다. 구완서는 청일전쟁의 불행을 개인의 일이 아닌 국민전체의 불행으로 인식하며, 옥련에게 힘 있는 나라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옥련에게 자주독립과 문명국가 건설의 프로젝트를 제시

28) 텍스트, 357면.

하며 서구지식의 습득을 권유한다.

일본은 조선인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또 버리기도 하는 양가성을 지니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여기서 <혈의 누>를 발표할 당시의 이 인직은 일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3.3. 만남과 준비의 공간, 미국

김관일은 전쟁의 혼란 가운데 처자의 생사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조선을 떠나 미국으로 가게 된다. 김관일은 군자의 길을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순서로 파악하지 않고 수신修身-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제가齊家の 순서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김관일이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위해 처신하던 당대 개화파 지식인들의 실천이데올로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물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김관일에 이어 옥련과 구완서도 미국으로 가게 된다. <혈의 누>의 인물들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보다도 더 쉽게 별다른 절차와 어려움 없이²⁹⁾ 미국을 넘나든다.

그 길로 횡빈까지 가서 배를 타니, 태평양 넓은 물에 마름같이 떠서 화살같이 밤낮 없이 달아나는 화륜선이 삼 주일만에 상항에 이르러 닻을 주니 이곳부터 미국이라. 조선서 낮이 되면 미국에는 밤이 되고 미국에서 밤이 되면 조선서는 낮이 되어 주야가 상반되는 별천지라. 산도 설고 물도 설고 사람도 처음 보는 인물이라. 키 크고 코 높고 노랑머리 흰 살빛에, 그 사람들이 도덕심이 배가 툭 터지도록 들었더라도 옥련의 눈에는 무섭게만 보인다.(42면)

위의 서사에서 실제로 미국에 이르는 시간의 길이는 3주일이 소요되

29) 정혜영, 「신소설과 외국유학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200-206면.

지만, 한 문장으로 축약 서술되고 있는 것은 서술자(작가)의 선형적인 주관성에 의존한 서술임을 알 수 있다. 조선사회에서 세계지리에 대한 지식의 생성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곤여만국전도>(1602)³⁰⁾가 조선에 들어오면서부터 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까지 보급, 인식되기까지는 2세기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근대학교의 설립³¹⁾과 근대교육의 보급 이전까지 서구지리에 대한 지식은 매체 혹은 소문을 통해서 파편적이고 불확실한 지식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혈의 누>의 서술자(작가)도 당대의 인식범주를 넘어서는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서술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서술도 인물들의 구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선형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처리되고 있다. 당대인들에게 미국은 환상과 상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서술이다. 유길준, 윤치호 등 당대의 선각자들이 펼치는 미국담론은 당대의 또 다른 선각자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이들의 미국담론들은 신화성³²⁾을 띠고 담론을 재생산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담론은 당대의 구성원들에게 미국을 동경하게 만들고 미국을 문명국가의 견본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공간에서 벌이는 인물들의 담론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건설 프로젝트

30) 배우성, 「서구식 세계지도의 조선적 해석, <천하도>」, 『한국과학사학회회지』 제22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2000, 55면.

31) 1895년 4월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성사범학교관제’를 발표해 신학제에 필요한 관제와 법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소학교·중학교·외국어학교가 신설되었다. 최초의 소학교는 수하동학교이며, 최초의 중학교는 한성중학교이다. 민간인이 세운 최초의 근대학교로는 원산학교가 있으며 사립학교는 원산학교 이후 민영환이 세운 흥화학교를 비롯해 1908년 전국적으로 5,000개의 사립학교가 생겨났다.(다음 백과사전, ‘한국의 학교’ 항목에서)

32) 롤랑바르트, 『현대의 신화』,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동문선, 1997, 264쪽.

실행준비에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옥련이가 구씨의 권하는 말을 듣고 조선부인 교육할 마음이 간절하여 구씨와 혼인 언약을 맺으니,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 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 같은 마음이요,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이라.(55면)

위의 서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옥련은 구완서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 건설 프로젝트에 공감하며 결혼을 허락한다. 부모의 뜻에 따른 결정이 아닌 옥련과 완서의 자유의사에 의한 혼인서약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서구지식의 습득과 함께 주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혼인결정을 실천하는 의미로 행해지는 혼인서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구완서에게 미국은 독일의 비스마르크처럼 조선을 중심으로 한 일본과 만주의 연방화, 결국에는 조선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건설 프로젝트의 실행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미국의 공간은 옥련에게도 서구지식의 습득으로 조선여성의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조선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건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미국은 또한 김관일의 가족이 만나는 공간으로 설정된다. 옥련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부에 재주를 보이며 고등소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한다. 옥련의 일이 신문에 기사화되자 김관일은 옥련을 찾게 되고, 옥련은 아버지인 김관일을 만나게 된다. 김관일의 아내는 남편이 옥련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 부친인 최주사와 함께 미국을 찾아간다. 미국은 해체되었던 김관일의 가족을 통합하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인직의 숨은 희망을 읽을 수 있다. 이인직에게 미국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 건설의 희망을 준비하는 공간이었다.

서사의 서술자(작가)는 ‘청일전쟁’을 ‘일청전쟁’이라고 호명하며 조선

의 공간에서 일본군은 선인으로, 청나라 군사는 악인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공간에서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구원과 배신을 일삼는 인물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공간에서는 다시 청국인인 강유위를 등장시켜서 학문을 시작하게 도와주는 선한 청국인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작가)가 대상을 향해서 지니는 관점의 불일치는 에테로토피아의 공간이었던 당대의 조선인의 국제정세에 대한 혼란한 인식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여기에서 <혈의 누>를 발표할 당시까지만 해도 이인직은 일본지향성보다는 조선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 건설을 꿈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마치며

이인직의 <혈의 누>(1906)는 세 개의 공간이 설정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간설정 기법을 통해서 이인직의 의식의 혼란과 잠재된 지향을 읽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요약해서 결론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이인직의 <혈의 누>는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인해 김관일의 일가가 겪는 수난과 인물들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 만들기 전략에 관한 서사이다. 서사에는 조선, 일본, 미국이라는 세 개의 공간이 설정되고 있다. 조선은 왕조의 말기적인 증세와 청일전쟁으로 인한 혼란함, 문명담론에 대한 실천의 열망 등 왕조해체의 위기로 인물들이 조선을 떠나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일본은 전쟁고아가 된 옥련이 구원되는 공간으로 설정되다가 결국에는 버려지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미국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고, 인물들이 서구지식을 습득하며 조선의 문명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공간 설정의 기법에서 이인직의 의식의 혼란과 잠재된 지향을 읽을 수 있다. 조선의 공간에서는 청국과 일본을 각각 악과 선의 축으로 구

분해서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의 공간에서는 일본을 믿을 수 없는 상대로 서술하고 있다. 미국의 공간에서는 인물들이 다시 청인의 도움으로 미국생활을 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런 대상에 대한 관점의 불일치는 정국혼란의 상태에서 중심을 잃은 작가의 의식상의 혼란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서술자(이인직)의 친일논리는 서사의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인물들의 궁극적인 지향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건설에 있었다. 이인직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문명국가건설을 준비하는 공간을 일본이 아니라 미국으로 설정했다. 이 점은 에테로피아의 공간에서 살았던 이인직이 <혈의 누>를 발표할 당시까지만 해도 친일의 정치성보다는 자주독립과 문명국가건설을 더 열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또 문명국가의 견본인 미국에서의 지식습득은 자주문명국가 건설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호로 작용한다. 이 논문은 친일의 논리에 치중되어왔던 이인직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주제어 : 신소설(new novel), 이인직(Li, in jik), 혈의 누(Tears of blood), 청일전쟁(Cheong Japan War), 일본(Japan), 미국(America), 공간(space), 유학(educational immigration), 자주문명국가건설(build Chosun the independence civilized country)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권영민·김종욱·배경열 편, 『한국 신소설선집』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 참고논저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00.

권영민, 『한국 민족문화론 연구』, 민음사, 1988.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 출판부, 1999.

김면수, 「『血의 淚』 小考」, 인하여문 연구: 인하대학교 제5호,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인하여문연구회), 2001.

김진희, 「백인의 의무」, 미국사 연구 19, 한국미국사학회, 2004.

김태준, 「《일동기유》와 《서유견문》」,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3, 한국 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97.

김 현, 「『혈의 누』 재고찰」, 서강어문: 서강대학교 제10집, 1994.

김현철, 「개화기 한국인의 대외인식과 ‘동양평화’ 구상」, 『평화연구』제 11권 1호, 2003년 겨울.

문성숙, 『개화기소설론연구』, 새문사, 1994.

박승규, 「『血의 淚』의 思想的 背景과 그 變質」, 論文集; 호남대학 (제6집 2권), 호남대학교 출판부, 1986.

배우성, 「서구식 세계지도의 조선적 해석, <천하도>」,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2권 제2호, 한국과학사학회, 2000.

이동하, 「『血의 淚』와 「無情」比較考察」,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제8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이민호, 「淸日戰爭과 朝鮮의 運命」, 동서사학 제8집, 한국동서사학회, 2001.

이용남 외, 『한국 개화기소설 연구』, 태학사, 2000.

이재선, 『한국 개화기소설 연구』, 일조각, 1972.

이홍숙, 「『혈의 누』의 신화성」, 단산학지 제4집, 전단학회, 1998.

전광용, 『신소설연구』, 새문사, 1986.

- 전기철, 「「血의 淚」에 나타난 流民의 삶의 세계」,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제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6.
- 정용화, 「한국인의 근대적 자아 형성과 오리엔탈리즘」, 『정치사상연구』 제10집 1호,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 정혜영, 「신소설과 외국유학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2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출판부, 1973.
- 최원식, 『「血의 淚」 小考, 일지사 한국학보, 한국학보, 1984.
- 최혜수, 「淸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國觀」, 사총: 고대사학회(제30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 한상무, 「「血의 淚」의 이데올로기」, 어문학보: 강원대학교 제17집,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4.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7.
- 후지무라 미치오, 『청일전쟁』, 허남린 옮김, 소화, 1997.
- 도널드 케이건, 『전쟁과 인간』, 김지원 옮김, 세종연구원, 2004.
-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광래 옮김, 민음사, 1993.
- 롤랑바르트, 『현대의 신화』,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동문선, 1997.

<Abstract>

<The Tears of Blood> and The Three Spaces

Lim, Seon-Ae

<The Tears of Blood>, written by Li in jik, is a new novel. It is about a severe trial of the family of Kim Gwan il according to Cheong Japan War and the characters' strategy of making the civilized country. In this epic poetry, there are three spaces—Chosun, Japan, America. Chosun is the space of "Leaving". According to its crisis of dynasty's dismantlement—the last years of dynasty, the confusion caused by Chung Japan War, the enthusiasm of practice about civilization discussion. At first, Japan was the space of "rescue" for the war orphan, Ok ryun. But it becomes the abandoned space. America is the space of meeting scattered family, learning western knowledge, preparing Chosun to become civilized country.

From the technology of creating the spaces, we can see confusion of Li's awareness and potential intention. In the space of Chosun, he describes Chung and Japan as the devil and the good. In the space of Japan, he describes Japan unfaithful. In the space of America, the characters live a life in America by the help of Chung people. The discordance of point of view about the objects shows the confusion of author's awareness.

Li's Japanophilism is shown in spots, but the character's final intention is to build Chosun the independence civilized country. Li established this space not Japan but America. This shows that Li desired to build the independence civilized country rather than to be

pro-Japanese. Learning from America means the practical ideology of building the independence civilized country. This paper will do a role of expanding the discussion of Li in jik who was known as a sympathizer for Japan.

임선애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의전담교수

전화: 053-850-3698(010-6806-6830)

e-mail: salim@cu.ac.kr

이 논문은	2006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6월	30일	간행함